

**(주)CJ제일제당**

**‘단풍미인한우’, CJ사료손 잡고 상생 다짐**

사업제휴 조인식 갖고 시너지 극대화 시동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이병하)와 정읍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김준영)이 지난해 11월 25일 전북 정읍 신정동 용산호변에 위치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서 사업제휴 조인식을 개최했다.

온리-원을 추구하는 CJ사료와 국내 최고의 고급육 생산 성적을 자랑하는 단풍미인한우는 이번 사업제휴 조인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법인은 2003년 9월 54개 농가가 참여해 설립했으며, 현재 정읍과 순창, 임실지역에 855호가 회원으로 참여, 3만 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20년이 넘는 조사료 개발과 혈통개량, 선진기술 도입 등 꾸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오며 1+등급 한우가 85% 이상, 1등급 96% 이상을 차지할 만큼 명품한우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무항생제 인증까지 획득해 고품질 친환경 한우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용산호 단풍미인한우홍보관은 1층 직영 판매점과 한우 체험 홍보관,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 3층 휴게실, 4층 회전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은 1973년 첫 제품을 출시한 이후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인천·군산·원주 3개 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 중인 사료축산연구소는 최고의 R&D 기술력과 핵심인재, 최신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강성훈 지구부장은 “고급육 생산에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단풍미인한우와 CJ사료의 기술력이 함께 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CJ제일제당 사료BU 남기돈 축우PM은 양사 사업제휴 조인식에 앞서 개최된 2011년도 한우산업의 과제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축두수는 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육패턴 장기비육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일정기간 후에는 출하물량이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 축우PM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급육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며 “1++ 등급의 경우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에 낮은 등급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우산업의 과제로 △고급육 생산 주력 △생산비 절감 노력 지속 △삼소사육 및 송아지 입실 신증 등을 제시했다.

## 동조물산(주)

### 렐리 아스트로넛 A4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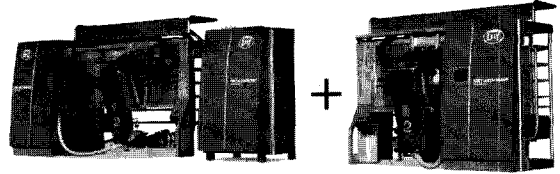
65두 착유 시 2억원 대, 130두 착유 시 4억원 대로 도입 가능한 차세대 맞춤형 로봇 착유기

전세계적으로 목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500두 이상의 대규모 목장에서 로봇 착유 및 자동화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낙농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추고자, 렐리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이 집약된 경제적인 차세대 맞춤형 로봇 착유기 렐리 아스트로넛 A4를 출시하였다.

렐리는 로봇 착유기의 최초 개발사로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15,000여대의 로봇 착유기 중 10,000여대를 공급해왔다. 이러한 렐리사의 20년 로봇 착유기술이 집약된 아스트로넛 A4는 간단한 최소 설비만으로도 첨단 자동화 목장을 구성할 수 있어 65두 착유 시 2억원 대, 130두 착유 시 4억원 대의 비용이면 어떤 목장이나 최첨단 로봇 착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또, 폭넓은 옵션 구성으로 목장의 상황이나 계획에 맞추어 필요 설비만을 선택, 최적화된 맞춤형 설비 구성이 가능하여 유럽시장에서는 이미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렐리 아스트로넛은 착유 및 세척설비가 모두 로봇에 내장되어 기존 축사 어디에나 설치 가능하고, 어떤 형태의 축사에도 개보수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신규 출시된 A4는 기존 장점을 바탕으로 동력공급, 세척 등의 장치가 집약된 캐비닛 형태의 중앙장치를 로봇 착유기 2대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설치, 이전은 물론 추가 확장이 더욱 간단해지고, 도입 및 유지비용은 훨씬 낮아졌다.

아스트로넛 A4는 기본 유질센서에 유지방/유단백, 유당 측정기능이 있어, 별도의 옵션 설치나 샘플채취, 시약 등의 유지비용 없이도 모든 소의 유



성분이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된다. 유성분 데이터는 즉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의 영양상태 이상을 감지하여 주의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대사성 질병 등의 확인이 매우 손쉽고 빠르다. 또 렐리의 DLM 모듈과 연계 시, 실시간 측정된 유량과 유성분을 바탕으로 사료급여와 착유횟수가 개체별로 자동 조절된다. 이를 통해 사료비 절감, 번식률 및 건강 향상 등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므로, 사료값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낙농환경에서 간편하게 목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스트로넛 A4는 K자형이던 기존의 소 출입형태가 자연스러운 I자형으로 개선되었다. I자형은 소가 방향전환 없이 직진으로 빠르게 로봇에 입장 및 퇴장할 수 있어 로봇 한대당 더 많은 두수를 착유하게 되며, 처음 착유하는 개체의 방향전환 학습시간이 단축되어 길들이기 훈련도 용이하다.

렐리 한국 독점대리점인 동조물산(주)에서는 렐리 아스트로넛 A4의 출시로, 한정된 물량에 대해서 구매계약 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2011년 1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 컨설팅팀에서 현재의 축사와 목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로봇 착유설비와 로봇 사양관리에 대한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본격적인 로봇 착유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맞춤형 로봇 착유기 렐리 아스트로넛 A4의 출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로봇 착유기 도입을 망설였던 낙농가들에게 2011년을 여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천하제일사료(주)

### 슈슈·뉴트리웰에 흠뻑 빠지다

- 신선한 국내산 닭고기를 강조한 홍보전략 강화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애완동물 산업박람회인 '2010 국제 애완동물/용품박람회(이하 KOPET)'가 높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매년 늦가을에 열리는 KOPET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KOPET은 광역 교통의 발달로 해마다 관람을 위해 지방에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들도 증가해 더욱 볼거리가 많아졌다.

이번에 처음 참가한 제일사료(주)는 하림의 '신선한 닭고기'로 생산한 애완동물식품으로 참가해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1962년부터 국내 축산업을 선도해 온 제일사료는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동물영양학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배합사료 전문회사로 최근 하림중앙연구소로 애완동물식품 전문 연구에 박차를 가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선함과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애완동물식품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제일사료(주) 애완동물팀 윤민식 팀장은 "국내 펫 시장은 크게 두 개의 채널로 본다."며 "동물병원과 애견 통한 전문점 채널과, 새로운 유통 경로로 자리 잡은 그로서리 채널로 구분하여 채널 별로 제품의 영양성분에 차별화를 주고 있다."고 말해 시장과 고객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밝혔다.

먼저 호주산 양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한 뉴트리웰(Nutriwell:뉴트리선+웰빙의 합성어)은 애견의 알레르기 발생을 줄여 주는 기능성 사료로 주로 동물병원과 애견에 유통된다. 마켓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슈슈(Chou Chou: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나 사물을 부르는 애칭)는 신선한 하림 닭고기와 업선된 원료로 기호성과 영양에 초점을 맞춰 차별성을 준 사료라는 것.

이날 슈슈와 뉴트리웰은 많은 애견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박람회 첫 참석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박람회를 관람하는 방문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형 포토존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평면을 입체형태로 재구성해 분주한 박람회장을 거실과 공원의 공간으로 꾸며 재미있는 사진 연출이 가능했다. 관람객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진도 찍고 즉석 인쇄된 사진도 받아가는 이벤트로 행사장은 웃음 꽃이 피었다.

또한 제일사료(주)는 향후 적극적인 고객경영을 위하여 자사에서 운영하는 제일펫(www.jeilpet.c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날 5대의 노트북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회원가입을 받아 행사기간 동안 약 1,600명의 신규회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애완동물팀 윤민식 팀장은 "앞으로 회원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 삼양사

### 삼양사, 비프솔루션 급여 소, 축산물품질평가원 왕중왕대회 수상

삼양사 사료BU(BU장: 강신우 상무)의 비프솔루션을 급여한 한우와 육우가 지난해 11월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군포에서 열린 「2010년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육 생산 왕중왕대회」에서 각각 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왕중왕대회는 올해가 8회차로 1년간 출하한 한우, 육우, 양돈을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둔 농가를 시상하는 행사이다.

지난해 비프솔루션을 급여한 육우(경주, 박성현 농가)가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우(장흥, 이민호 농가)와 육우(경주, 오백역 농가) 모두 수상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한우부문 우수상(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을 수상한 전남 장흥의 이민호 농가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6%(전국 평균 47%)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육우부문에서 전국 1등인 대상(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의 오백역 농가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40%(전국 평균 13%)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삼양사 사료의 비프솔루션 시리즈는 2003년에 국립축산과학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고급육 생산사료로 국내 최초「NSC NDF 이론」을 도입하여, 매년 새로운 고급육 생산 관련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한우와 육우의 고급육 생산에서 국내 최고 사료임을 자랑한다.

지난해 들어 비육우들의 판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비육우 양축가들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급육 생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가운데 비프솔루션은 비육우 양축가들의 등급출현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